

자기 주도 활동 권장의 자유활동

1. 다양한 표현과 체계적인 활동을 자기 주도적으로 수행

2. 제시된 주제 또는 소재에 따른 활동 방법을 제시하고 자유롭게 과정 중심의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유도

2. 자기 주도 활동을 계획하고 스스로 정리

7세 어린이들은 자기 주도 활동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일단 자유활동 시간에 7세 어린이들을 주축으로 현재 자유활동 유형에서 7세 어린이들이 주제 분석과 확장활동으로 동생들의 자유 활동 시 주제 접근을 흥미롭게 할 수 있도록 7세 어린이들이 자기 주도력과 적극성을 모범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교사가 유도한다.

즉 협력성과 활동의 수준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서서히 몰입하면서 끈기있게 활동을 즐길 수 있게 한다.

모든 자유활동은 다양한 표현과 사실적인, 현실과 연관지어 활동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집을 만든다면... 단순히 집의 모양과 겉모습만 집으로 작업하게 하지 않고 어떤 그림책의 스토리로 설명된 집인지, 집의 내부에 그 이야기에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지 등 겉모습만을 표현하는 작업이 아니라, 속성, 그와 관련된 스토리의 설명을 하나하나 풀어 작업할 수 있게 한다. 이에 아이들의 현실성 즉 창의성을 적극 발휘하게 한다. 창의성은 현실이다. 상상력을 비롯해 시작이지만, 독창성, 민감성, 응용성, 문제해결, 완벽한 재구성 등 모든 요소는 현실과 연관되어 있기에 진정 창의적 발휘 능력을 권장하는 자유활동은 표면적으로 표현해 내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아이디어를 동시에 인지하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표현해 내는 과정이다. 이에 7세 어린이들의 자유활동은 구체성과 섬세함, 창의적 요소를 모두 발휘하면서 자유활동의 작업을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사들의 환경과 분위기, 상호작용 제시에 노력한다.

그림책 학교의 자유활동은 다양한 교구 활동을 이것저것 경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소재와 주제 제시이다. 그림책의 소재와 주제 제시에 따라 아이들은 그림책을 먼저 보게 되고 자신의 모든 생각을 동원에서 그 소재와 주제를 나름대로 자유롭게 즉흥적으로 분석하면서 무엇이든 표현하게 한다. 단순히 준비된 자료를 만지면서 놀게 하는 자유활동은 늘 반복적이다. 아이들은 그 주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하나씩 서서히 만들어가게한다. 한번에 끝내게 하지 않고 며칠에 걸쳐서 자신의 활동과정을 (표현된 작업물) 보고 또 보게 하면서 완성도를 높이게 한다. 교사는 아이들의 자유활동을 꼼꼼하게 관찰하는 입장이다. 창의성(요소)을 발휘하며 활동하는지, 자기 주도적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몰입하는지, 협력과 주제관련 접근을 동생들에게 흥미롭게 제시하며 자신의 생각과 표현을 더욱더 구체화하는데 완성도를 높이는지

이 3가지를 늘 꼼꼼히 살피게 하고 기록하게 함으로 앞으로 진행될 그림책 융합 교육 수업에 아이들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고 인식하면서 수업에 임하고 학부모와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아이의 발달 및 학습 상황을 공유한다.

자기 주도 활동을 사전에 계획하도록 하고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미니 수첩과 달력에 계획하게 한다. 사전에 주제와 소재를 제시해주면 아이들은 자유활동 시간에 다음에 자유활동을 스스로 생각해서 계획하면서 기록하게 하고

스스로 자신의 자기 주도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이는 아이가 자신의 능력을 인식하고 자존감과 자신감을 높일 수 있다.

그림책을 활용한 융합형 창조 교육 프로그램 실천

1. 그림책 깊이 바라보며 특별한 사고능력 발휘
-분석, 추측, 비교, 탐구, 문제해결 능력 등
2. 다양한 영역을 포함한 융합 교육 실천
3. 책을 활용한 다양한 주제 접근 방식으로 창조적인
놀이와 활동 협력 구안
4. 영어를 모국어처럼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병행
-speaking (번역서, 외서 동일 그림책 활용)

일단 우리 수업은 그림책을 깊이 있게 읽어낼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책을 보는 분위기가 단순하게 눈으로 보고 책장 넘기며 많이 봤다가 아니라 한권을 보더라도 누가 얼마나 제대로 깊이있게 봤는지 함께 책을 보면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그림책을 깊이있게 보고 난 후 무조건 자연스럽게 토론의 분위기가 이어지게 된다. 아이들의 토론은 별도의 수업처럼이 아니라 깊이있게 보고 나면 토론은 교사의 문제 제시로 먼저 시작되면서 아이들의 사고력이 확산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우리의 그림책 수업의 시작에 좋은 밑거름이 된다. 즉 생각을 열기 위한 워밍업이다. 생각을 열어야만 그다음의 수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책의 문학적 접근은 그림책이야기 하나에서 미술, 노래, 언어, 과학 등 영역 중심으로 활동을 한다. 이는 활동 중심 수업으로 그림책의 이야기와 그림책의 숨겨진 사실을 기반으로 수업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림책의 글과 그림을 깊이있게 다루기가 힘들다. 즉 문학적 접근은 꼭! 그 책이 아니더라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들이다. 그러나 융합 교육에서는 활동 중심이 아닌 배경 즉 스토리 중심이다. 그 스토리만 가지고 그 활동은 가능할 수 있도록 스토리를 다양하게 분석하여 활동을 창조적으로 전개하게 된다. 우리의 수업은 창조적인 전개 방식으로 아이들의 창조능력을 발전 시킨다.

창조적인 놀이 구안 (이것은 6세 수업과 비슷한 패턴이나, 7세는 책이 조금 어려워지고 놀이 구안 방식에 있어 방법을 알려주고 이끌고 가는 방식이 아니라, 아이들이 놀이를 창조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문제 제시가 있고 문제 제시를 해결하기 위한 놀이를 만들어간

다. 이러한 과정에서 굉장히 수많은 스토리가 만들어지게 되고 다양한 영역을 훨씬 더 융합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번역서의 그림책과 영어 수업을 위한 그림책은 동일한 것으로 학습하고

창조 놀이 구안은 영어와 모국어를 함께 쓴다. 일단 영어는 기록과 어휘 습득에 기본을 두고 모국어 수업의 마무리 부분에서 우리가 과정 중에 발현한 모든 생각(문제제시에서 해결된 이야기)을 영어 말하기로 진행한다.-스토리박스 수업

6세 수업의 창조놀이 구안 방식을 함께 설명하십시오.

생각의 정리 및 기록의 다양성 -다이어리 활용 교육

1. 다양한 활동을 정리하며 체계적인 기록 교육 실시

2. 취학 전 대비 교육의 교육과정 실천 -스토리텔링 수학 병행 교육 실시

3. 영어의 말하기 능력 향상을 위한 영어로 쓰기 교육 체계적 실천 (storybox)

해당 페이지의 다이어리 기록한 사진들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다이어리 사진 보여주면서 키워드 기록과 도식의 기록 방식, 자신의 생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임을 말해주세요.

취학전 대비 교육에 있어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각을 말로 전달하고 쓰기로 전달하는 것이다.

결국 사고력을 발휘하여 말로 표현해 내지 못하면 쓰기의 전달 또한 부족할 수 밖에 없다.

다이어리 활용 교육은 활동 과정 중에 충분히 발현된 생각들을 마무리로 정리하는 수업이다. 스토리텔링 수학은 수학 놀이 만들기로 진행한다.

수학 놀이 만들기의 방식은 이번 6세 수학 다이어리 수업과 같은 방식이다.

영어의 스토리박스 활동에서 만들어진 말하기의 문장은 다이어리에 기록한다.

기록 방식은 흥미 중심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기록된다.